

금융권, SaaS·AI·블록체인 도입... '디지털 전환' 드라이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금융당국, 은행 등 SaaS 규제완화 AI기반 이미지 생성 등 활용 확대 대출심사·마케팅 분석 등 AI기반 서비스 전 영역으로 확대

금융권이 디지털전환(AX)을 가속하고 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개선하고, 고객 상담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와 내부 감사 업무에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비용을 효율화한다. 차세대 먹거리 탐색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 내부망 SaaS 활용 허용

금융당국은 지난 20일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고객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SaaS를 사용하지 않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검증된 소프트웨어에 한해 해당 규제에 예외를 두게 된 것이다.

SaaS는 클라우드 서버(가상화 서버)를 통해 공동 문서작업, 화상 회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이나 공동 작업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365'



NH농협은행의 무인점포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에 설치된 초고속입출금기(STM). /NH농협은행

등이 대표적인 SaaS이며, 구독제로 운영되는 만큼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실시된 '망 분리'로 금융사들의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된 만큼 내부망에서는 SaaS 서비스 이용이 까다로웠다.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농협)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계열사에서 SaaS를 활용 중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작년에만 각각 23건의 SaaS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기존에는 SaaS가 공동 작업, 화상회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됐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생성 ▲인사·회계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영역까지 SaaS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 인공지능(AI) 활용 증가

금융권은 인공지능(AI)의 활용도 늘리고 있다. 기존에는 '챗봇'이나 'AI ARS' 등 모바일·인터넷 뱅킹의 고객 상담에 주로 활용했던 AI 기반 서비스를 ▲대출 심사 ▲투자 제안 ▲마케팅 분석 및 상품제안 등 소비자금융 전(全) 영역으로 확대했다. 통장·카드 발급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와 AI 기반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시 직원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STM(고성능 현금입출금기)

도 등장했다.

내부 업무에도 AI 활용을 늘린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 시 기존 신용점수 기반 모델에 AI 기반의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대안 신용평가'를 시험하고 있다. '신용 인플레'로 분별력이 낮아진 기존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AI를 활용해 내부통제를 강화했으며, 전표처리 등 단순 사무업무를 AI가 보조하도록 해 직원 생산성도 향상했다.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하는 것은 비용 효율화의 측면이 크다. 직원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직원당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보조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을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 '블록체인' 인프라 선제 구축

금융회사들은 '블록체인' 시장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누구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활용한 '가상 자산'은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의 산물이다.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스테이

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가치에 대해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다. 기존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갖지만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송금이나 결제 시 소요되는 비용은 더 낮다. 스테이블코인이 간편결제, 환전, 송금 등 영역에서 기존 금융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근거법이 없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불가하다. 그러나 4대 금융은 블록체인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기술 검증(POC)을 진행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iM금융이 자체 개발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서비스를 실증하면서,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결제 시스템 구축 가능성도 제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의 패러다임이 디지털 금융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각 금융사들도 경쟁력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면서 "최근에는 각종 규제 완화에도 속도가 붙는 만큼,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여신금융협회, 차기회장 선임 회추위 가동

이달 말 이사회, 내달 회추위 수순 서태종·김근익·이동철 등 하마평

반년 가까이 표류했던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된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오는 6월까지 현 회장이 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말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위해 이사회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 이사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달 회추위를 본격 가동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달 말 이사회와 이사회 간담회를 먼저 진행하고, 내달 회추위를 개최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회추위를 이끌 의장을 선출하고, 향후 인선을 위한 일정과 절차를 조율할 예정

이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이사회는 정완규 회장과 카드사 및 캐피탈사 대표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구성원은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차기 회장 선임은 이사회 회추위 구성, 후보 공모 및 심사, 최종 후보 추천, 총회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다. 선임 과정에 2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추가 지연 변수가 없다면 새 협회장은 6월 말~7월 초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선 절차 개시는 정완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정 회장의 임기는 지난해 10월까지였다. 그러나 임기 만료 후에도 차기 회장 선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통상 회추위는 현 회장 임기 만료 최소 두 달 전부터 구성돼 왔다. 최근 10년 내 최장 지연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3년 제9대 이두형 전 회장 후임 인선에는 2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2022년 제12대 김주현 전 회장 후임 인선은 4개월가량

늦어진 바 있다.

현재 일정에서 추가 지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 일정에서 그렇게 많이 지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차기 회장 후보에는 민관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서태종 전 한국금융연수원장, 김근익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이동철 전 KB금융 부회장,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한편, 이번 여신금융협회장 선임을 계기로 표류하던 다른 금융권 수장의 선임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화재보험협회의 경우 지난해 2월 임기가 만료된 강영구 이사장의 후임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해 11월 임기가 종료된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후임 절차도 예상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차 보험 가입자, 보장 넓히고 보험료 줄였다

보험개발원, 2025 자가용 보험 현황 평균 보험료 68만원... 2.3% 낮아져

고유가와 차량가격 상승이 맞물린 가운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보장은 넓히면서도 보험료는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배상 한도와 자차담보 가입률은 높아진 반면, 다이렉트 가입과 할인특약 활용이 늘면서 평균 보험료는 68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21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차량가격 상승에 따라 보상 한도를 확대하면서도 비대면 가입과 할인특약을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입 경향이 한층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평균 보험료가 전년보다 2.3% 낮아진 68만원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보장 범위는 확대됐다. 개인용 자동차의 평균 차량가액은 2023년 1640만원에서 2024년 1696만원, 2025년 1745만원으로 상승했다. 신차 기준 평균 차량 가격도 같은 기간 4847만원에서 5026만원, 5243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물배상 3억원 이상 가입 비중은 84.6%로 높아졌고, 10억원 이상 고액 구간 가입 비중도 51.0%로 절반을 넘어섰다. 자차담보 가입률 역시 85.8%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배터리 교체 비용과 전손 위험이 큰 전기차의 자차 가입률은 96.1%에 육박했다.

보험료 절감 측면에서는 비대면 채널 풀림이 더 뚜렷해졌다. CM(사이버 마케팅) 채널 가입률은 2023년 47.0%,



비대면채널 보험 가입으로 차보험료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뉴스1

2024년 49.5%, 2025년 51.4%로 올라 과반을 차지했다. 같은 시점 대면채널 가입률은 31.7%, TM(텔레 마케팅)은 15.8%, 플랫폼 마케팅(PM)은 1.1%였다. 보험개발원은 CM 채널 보험료가 대면채널보다 평균 19%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CM 가입률이 69.1%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도 CM 가입률이 36.3%까지 올라 대면채널(42.8%)과의 격차를 좁혔다.

할인특약도 사실상 '선택'보다 '필수'에 가까워졌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88.4%로 높아졌고, 보험료 환급률도 10.2%로 상승했다. 가입자의 66%가 환급 기준을 충족했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3000원이었다. 긴급제동 경고장치와 차선유지 경고장치 장착률도 각각 44.3%, 43.8%로 높아지면서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 활용 역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사고경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우량등급 가입자도 늘었다. 할인 등급(11F~29P) 가입자 비중은 2023년 88.3%, 2024년 88.9%, 2025년 89.5%로 상승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GS건설, 인도 '재생에너지' 사업 본격 진출

아리 에너지·수출에너지와 MOU

GS건설은 인도 재생에너지 리파워링 기업 아리 에너지(Arie Energy), 인도 풍력 발전 선두기업 수출에너지(Suzlon Energy)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인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아리 에너지와는 리파워링 사업

을 공동 추진한다.

리파워링은 노후 풍력발전소를 최신 터빈으로 교체해 발전량을 늘리고, 초기 개발 리스크를 줄여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향후 5년 내 인도에서 1기 가와트 규모의 풍력 리파워링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양사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프로젝트 개발부터 투자, 운영까지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GS건설은 투자·금융 조달과 사업 구조

화를 맡고, 현지 기업은 인허가와 부지 확보를 담당한다.

수출에너지와는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통합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한다. 인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사업 구조화·투자·금융 조달을, 수출에너지는 기술 최적화와 발전소 운영을 담당한다. 특히 발전원 다변화를 통해 기후 변수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공급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성재리 인턴기자 cr56@